둘 아닌 도리 알고 나퉈야 참 자유인

☞ 19면에서 계속

사랑 아닌 게 없으니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무(無)'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써놓지 않고 그냥 백지에다가 저 허공에서 점 하나 뚝 떨어지기 이전을, 침 뱉어서 떨어지기 이전을 그냥 이름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걸 이름해서 부처라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처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국한된 것이 부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컬어 자유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자리에서 살았고 현재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살고 미래에도 이 자리에서 또 살 거니까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유인은 다음생 어떤지…

문 보통 사람들은 업에 따라서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된 사람들은 다음 생에 태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태어나게 된다는데요. 만약에 태어나게 된다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해탈된 경지로 태어납니까?

답 이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윤회나 인과 이런 데에 끄달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도 누구든지 손을 못 대요. 그러나 공부로써 놓고 가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 업보에 끄달리는 거예요. 윤회에도 끄달리고 그냥 끄달리고 걸리는 거죠.

그 왜 걸리느냐? 자기 숙명통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력된 것이 지금 현실로 자꾸 나오는 것인데 숙명통이라는 영원한 자동적인 컴퓨터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앞서 입력됐던 게 없어지거든요. 새로 입력하는 것만 들어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자운명에도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고 거기 불을 자리가 못된다 이런 말이에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끄달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끄달리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거적을 쓰고 죽든 또는 아주 좋은 이불을 덮고 죽든 그건 자유예요.

그래서 얻은 사람에 한해서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자유스럽지만 이 경지를 모르고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허무하기만 하겠지요. 자유스럽지도 못하고요. 콩깍지가 익은 거는 탁 건드리기만 해도 콩이 탁 나오지만, 죽는 걸 표현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은 것은 그냥 속껍질도 다 짝 붙었어요. 그래서 그 속껍질에서 떨어져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몇 년씩 앓고 온통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고서도 그 설은 게 말라서 껍데기가 벗겨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그냥 "얘야, 난 어째 잠이 온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 모레 어디 좀 갈 일이 있으니 이거, 이거 좀 챙기고 옷 좀 챙겨주고 그래라" 이렇게 해놓고는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속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자기를 다스리면서 잘 해나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게 바로 자유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속을 썩이고 이러면 '얘, 네 친구와 내 친구가, 즉 말하자면 저 자식과 나의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까 그저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 저기도 불이 들어오게 해라.' 이러고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양쪽에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이치예요. 모두가 가설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대로 모든 것을 '아하! 여기서 그러는구나. 그건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죽든 나가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가난해서 죽든 나한텐 아랑곳없다. 네가 골고 다니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놨을 때에 비로소 주인이자 시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몸뚱이가 시자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주인이자 시자거든요. 시자이자 주인이고, 이게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배울 때는 주인공이라고 했지만 주인공이 바로 자기 시자이자 주인이자 부처이자 자유인일 뿐인 것입니다.

약 안 쓰고 병 낫고 싶어요

문 스님께서는 마음에는 체가 없어서 윤회도 병도 불을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 일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건강이 나쁘지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받아야 했었는데 폐도 나빠졌고 그래서 한약을 굉장히 오래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할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을 쓰지 않고 공부로써 낫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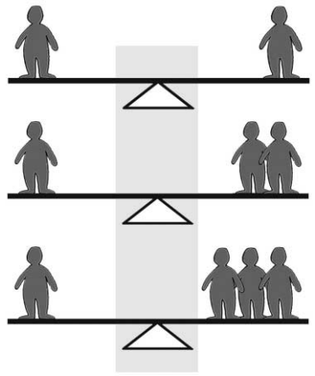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각할땐 나와 남이 모두 이익되게
참나에 맡기고 실험하니 생활 참선

답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성하게 산 것도 네 놈이 한 것이고, 내 친구가 한 것이고, 이렇게 아프게 된 것도 내가 아프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보려고 테스트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고선 거기다 그냥 맡겨놓으면 한 찰나인데 왜 그렇게 생각들을 복잡하게 길게 뭉쳐 놓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니게, 항상 전력이 잘나잘나 왔다갔다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발전소에서 전력이 와야 만이 불도 켤 수 있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각자의 발전소가 있지만 이 발전소에 가설만 해놨지 지금 전력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같이 불을 켜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지극하게 해보세요.

자책하니 에너지 빠져나가

문 제가 요사이 생활 속에서 행을 좀 잘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을 잘못했다 라고 자책을 하면서 생활하다 보니 저의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지장이 많고 자신감도 없어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지요?

답 에너지는 자동적이기 때문에 자력이나 전력이나 광력 통신력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봐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니까 생각을 잘해라 이겁니다. 생각을 할 때, 자기를 구덩이에다 쓸어 넣게 생각하지 말고 말 잘못하지 말고 조심하고 항상 남과 나를 이익하게만 생각하고 공심으로 해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용도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좋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꿈을 꾼다 하더라도 둘이 아니니까 이것도 꿈이요, 영화배우나 똑같아요. 극장에 가면 영화를 보지요? 그런 거나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그렇게 억눌려서 하지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남과 남이, 나와 남이 서로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내면 돼요. 그렇게 돌려놓고요. 그것이 다 살아왔던 관습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에 더불어 같이 사는 개체의 의식들이 다 내가 마음을 내는 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만 제대로, 나오는 대로 나오는 그 자리에다 되놓을 수 있다면 그 헤아릴 수 없는 의식이 다 따라주니까 기가 어떻게 되느니 상관할 것도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용도대로 닥쳐오는 일들을 대장부의 살림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기도는 어느 때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기도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도라는 건 타의를 향해 비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렇게 절대자를 찾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하는데 여러분이 혹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밖으로 찾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수행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불교에서는 자성을 봐라, 너 아닌 너를 발현하라고 했는데 모두들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주처는 각자 자기한테 있는 건데 어째서 고상을 걸어놓고 거기에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자기, 즉 말하자면 자기 원소를 진짜로 믿는 데는 관(觀)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 군데다 놓고 빌지 마라 이 소립니다. 빌면서 나를 잘되게 해 달라, 또 산신님한테다 놔야 되고 부처님한테다 놔야 되고 칠성님한테다 놔야 되고 신중단에다 놔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에 놓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약한 마음에 의해서 오히려 우환과 가환은 끊일 날이 없이 거기에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말을 안 합니다. 기도를 한다면 상대가 꼭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그냥 관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 놓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체험하고 나가는 게, 그냥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게 행선입니다. 일하면서 하는 게 행선, 누워서 하는 게 와선, 서서 하는 게 입선, 앉아서 하는 게 좌선, 다 그냥 같이 돌아가는 것이, 생활 속에서 하는 게 그냥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참선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달구지를 치느냐, 소를 치느냐 했습니다. 달구지를 끌고 가야 하는데 달구지를 쳐야 가겠습니까, 소를 쳐야 가겠습니까. 소를 쳐야 달구지를 끌고 가지, 아니, 달구지를 치는데 소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기복은 모두 지금 달구지를 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온통 야단법석들을 하는 것이 바로 달구지를 치는 격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실천하는 수행으로서 자기 마음이라는 소를 치지 못한다면 모두 달구지를 치는 격입니다.

그렇게 참답게 수행해나가다 마음의 물리가 터진다면, 증득한다면 바로 과거 자기와 현재 자기의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다면 내 씨가 나에게 들어 있는 줄 알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둘이 아닌 나툼을 할 때, 무(無)의 세계와 유(有)의 세계를 한꺼번에 한 손에 쥐고 중용을 할 때 비로소 참 자유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부처라고도 하고 자유인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비로소 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끌어 나가면서 바로 제도하는 것으로써 남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키워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도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래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느라 삶이 힘들어져

서양서 불교에 관심 많은 까닭

문 불교가 원래 아시아지역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번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겉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불교에 대해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서양에서는 과학과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불교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오히려 우리는 무관심해지고 과학도 더 발달되고 문명도 더 발달됐다고 하는 서양사람들은 불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지 스님께서는 해외 포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 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을 볼 때 정신과 물질인 몸이 같이 돌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합이 합쳐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불교 아닌 게 없다.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는데 어디 불교가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거냐. 당신네들은 생명이 없느냐. 모두가 불교 아닌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에 미국의 발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또 처음에는 무엇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한다면 바로 영국이라고 볼 때,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다 그 활력을 불어넣어 준거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왜 그런가? 아주 고생을 할 때는 고통과 가난으로 인해 자기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리드 할 수 없는 그러한 방황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고 나라가 가난한 데다가 그 사람네들은 자기로부터 연구하겠다는 생각이 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깐 거기에서 개발이 된 거고 마음으로부터 개발이 된 거지, 과학자들도 마음으로부터 개발이 된 거지 그 마음 떠나서는 개발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는 것도 마음이요, 선하게 하는 것도 마음이요, 개발이 되는 것도 마음이요, 과학자들도 다 마음입니다. 그래,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연등을 하나 만드는 데도 요렇게 붙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랩시가 있게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뚝딱 해서 덜 붙이고 비켜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그 마음들이 잘됐다 못됐다 하기 이전에 자기는 자기로부터 안 겁니다. 자기부터 안 겁니다. 이게 바로 정신세계의 통로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 보면 미국인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모두들 쳘두쳘미하게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가톨릭은 바깥으로 모아 놓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고 바깥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내 죄를 없애 달라고 그러면서, 즉 말하자면 외부에서 찾고 있죠.

그런데 불가에서는 '일체 만물 만생 움죽거리는 법이 전부 한 군데서 나고 드느니라. 너부터 알라! 네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무효니라, 없느니라. 네가 나왔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상대가 생기고 이 세상이 벌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벌어진 일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모두 자기 탓이죠? 그런데 자기로부터 풀어나갈 생각은 안하고 꼭 상대로부터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핀트가 맞질 않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분야의 교수나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받을 학생들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논문 같은 것을 쓸 때 안절부절하고 방황하고 어지럽고 힘드는 것을 스님께서 핵심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논문을 쓸 때도 술술 풀려 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도 연구하는 데에 50%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물질 세계로만 연구를 하려니 논문이 써지겠습니까? 반이 보이지 않는 건데 말입니다. 지금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모르니까 논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지켜보며 관하라

놓는 사람은 윤회 업보 끄달리지 않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마음공부를 해나가던 과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수석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됐던 겁니다. 이게 벌써 십여 년 전 얘깁니다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실천을 옮기면서 맛을 알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갑니다. 간혹 그렇게 실천해 가는 분들을 볼 때면 저도 더불어 기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사해 하지 마라. 나는 통로만 일러주었을 뿐이고, 당신네들이 믿고 따르고 갔으니까 그렇지 당신네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있으며 내가 없으면 당신네들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마음으로 뭉쳐서 실천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없이 참 착실한 우리가 됐지 않느냐? 그러니 한마음에 감사해라.' 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하고 물질문명이 발전됐어도 그건 물질 과학이지 심성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 과학은 한계가 있지만 심성 과학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무한계죠. 광대무변하고 묘한 법이기 때문에 세세생생을 가도 손색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심성의학, 심성과학이 아니라면 앞으로 상당히 살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과의 대화 허전해져

문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 법우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바깥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평범하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 방에 틀어박혀서 저 혼자 주인공하고 대화를 합니다. 물론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가끔 느끼지만 어떤 때는 간절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러 주인공하고 대화를 안 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나오는 것들을 계속, 네가 냈으니 네가 먹어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요즘 와서 어떤 게 느껴지냐 하면 내가 내 생각 속에서만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마음이 허전해지는데 제가 올바르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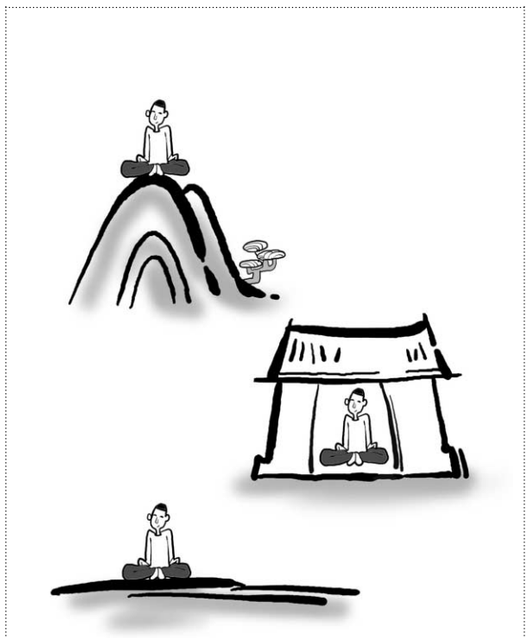
답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광대하고 천차만별로 나투는 도리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

그럼 과학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들, 마음으로 하는 건 빛보다 더 빠르게 단축하는 거고, 지금 과정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지마는 팩시밀리 왔다갔다하고 인공위성 띄워서 모두 전파가 되고 이러는 거 느끼지? 그러면 그거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해서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죽거리게 하는 거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고 누가 틀어 박혀서 대화를 하랬나요? 움직이면서 관하라고 했지!

그리고 뭐가 허전하다는 건지. 믿지 못하니까 허전하지, 진짜로 믿어 봐 허전한가!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가 있는 거야. 나는 예전에도 그렇게 살아 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제 놈이 있다면 절도 지을 거고 제 놈이 없다면 못 지을 거니까. 왜? 믿으니까. 그래! 제 놈이 있다는 거를 믿으니까, 제 놈이 할 수 있다는 거를 믿으니까 어떠한 거라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믿으니까 그러는 거야.

네가 허전해 지는 것은 믿지 못하니까 그렇잖아? 왜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 영원한 친구를 못 믿어? 자기 몸뚱이는 집이야. 자기 영원한 친구의 집이야. 집하고 둘이 아니야. 음식을 끓여 내려면 오븐에 넣어야 끓여내지? 그 오븐도 집이란 말이야. 음식 해내는 집!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관하는 거야, 네가 진짜 있다면 지금 급한데 너밖에 할 수 없잖아 하고 거기 맡겨놓고 지켜보는 것. 그렇다고 해서 꼭 방안에 들어앉아서 문 걸어 잠그고 지켜보라는 게 아냐. 방안이나 방 바깥이나, 들이나 산이나 똑같은 자리야.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그래서 공부한다고 일부러 뭐 산 속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하는 거는 거추장한 일이야. 산 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고 들로 나오면 마음이 달라지나? 마음이 있는 자리는 자기 몸뚱이 있는 자리에 그냥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으로 올가매니까 점점 더 허전해 지는 거야. 자유스럽지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거창하게 갖다 붙이지 말고 뭐든 자유스럽게 해. 마음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림 · 최주현

부처님이 중생 건지고 계신지

문 저는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불경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참선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지만 지극하게 내 안의 근본과 둘 아니게 부처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둘 아니게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미혹한 중생을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 인지요?

답 허허, 항상 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도 부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부처님' 하는 건 어느 개별적인 하나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안팎이 없으면 그대로 부처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부처님은 언제나, 하다 못해 죽여도 살리는 거고 살려도 살리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어느 사람이 정성을 지극히 들였는데 그 이튿날 죽어버렸어요. 아주 가난하고 그래서 깡패가 되어서 맨날 부모 속을 썩이고 그냥 몇 번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랬으니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크게 될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집어줄래야 집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 그 이튿날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깡패 짓을 하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마음을 뉘우쳐서 어느 스님한테 줬는데, 그 다음날 죽는 것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한 순간에. 도인 스님이라고 그러지만, 도인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도인이야.

그래서 어린애처럼 사는 도인한테 줬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를 하려니까 도인하는 거지만, 그냥 도둑질을 했던지 어떻게 됐던지 좀 모아 놓은 거를 몽땅 다 죽으려고 아예 줘버렸어요. 그분한테. 내가 잘못한 걸 다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곤 다 내놨어요. 그러구 개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턱 보니까 본래는 그렇게 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는 걸보고 그냥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죽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여기 정성스럽게 다니는 사람이 정성을 들이고 그 이튿날 죽었으면 '뭐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거기 나갔는데 왜 그 이튿날 죽었느냐, 시주를 그렇게 했는데 왜 죽었느냐.' 그럴 테지요.

그래 그렇게 죽으니까 시자가 하는 소리가 "스님, 그 사람은 시주를 해서 지금 불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튿날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아! 이 다음에 알 것이니 가만있어라." 이러고는 나중에 자기가 깨우치니까 그 도리를 알겠더라 이거예요. '아, 스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아무데 거기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가는데 여러분은 그 도리를 보지 못하는 거 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할 뿐이죠. 전력이 들어오는 거는 못 보듯이, 전구에 불 들어온 것만 보지 전력이 들어오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못 보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전력이 흐른다는 건 알고 있고 믿지요?

여러분 자체에 그와 같이 전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자가발전소라고 한다면 내 하나 발전소에서 나가는 전깃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씩 자가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무진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공부에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신다면 지금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의 참 다운 뜻을 기필코 알게 되리라 봅니다.

마음이 죽어야 자유인 됩니까

문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음 공부하는 데는 세간이나 출세간이 따로 없으니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나라고 내세우는 이 마음이 무조건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렇게 죽기만 하면 자유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우리가 지금 녹이는 작업을 한다는 것과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이라는 용광로에다 헌 쇠든 새 쇠든 토막난 쇠든 전부 거기다 넣어서 녹이는 것이 작업이고, 그게 죽는 공부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용광로에다 넣는 작업을 한다면 재생이 돼서 나가는 거는 정한 이치니까 나오는 것은 관여하지 말고 무조건 넣고 지켜봐야 해요.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가니까요. 그런데 '저게 재생이 될까 안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작업을 한다면 쇠를 넣을 수도 없고 그건 죽는 게 아니지요. 조건이 붙어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자유인이 되어야 할 텐데' 하고 자유인이라는 말 자체가 붙는다면 벌써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다 자유인이 아니다를 떠나서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자고 싶으면 그냥 자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자유스

} 일하는 것도 마음
착한 것도 마음
과학도 마음이니
마음개발이 중요

~

럽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겠다는 것도 언제쯤으로 기한을 정해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하나요 둘도 하나요 셋도 하나요 만도 하나니까요. 그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처니까 그 하나도 없는 도리를 알면 이걸로도 나투고 저걸로도 나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개구리 속에 들어간다면 내가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또 뱀 속에 들어가면 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뱀의 심리를 알게 되지요. 개구리 속에 들어가니까 개구리 심리를 알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용 탕도 할 수 있고 개구리 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건 전부 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할 수 없는 것이, 내 아님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수억 겁 전부터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 가지고 인간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마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을 홀딱 뒤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고, 미래에 가서 개척도 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이 모든 사람이 응하는 대로 그게 돼줄 수 있고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내 아님이 없고, 어떠한 도량도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어떤 몸도 내 몸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 20면으로 계속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